

마태복음

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(2) (230802)

1.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이적

- 1.1. 마태복음의 핵심 구조: () + ()
 - 1.1.1. 마 5-7장: 산상수훈(가르침)
 - 1.1.2. 마 8-9장: 예수님의 이적(능력)
- 1.2.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() 권위

2. 마태를 부르심(마 9:9-10)

- 2.1. 세관에 앉아 있는 "마태"라는 사람(마 9:9)
 - 2.1.1. 마가복음에서는 "알패오의 아들 레위"라고 부름(막 2:14)
 - 2.1.2. 누가복음에서는 "레위라는 세리"라고 부름(눅 5:27-28)
 - 2.1.3. 레위 가문의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세관
- 2.2. "마태"는 "하나님의 ()"이라는 뜻
 - 2.2.1. 세관은 "매국노"이며, 자기만 생각하는 "탐욕"의 상징
 - 2.2.2. 이러한 마태가 어떻게 자기의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?
- 2.3. 예수님의 초청: "나를 따르라"(마 9:9)
 - 2.3.1. 마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음
 - 2.3.2. 문맥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"나를 따르라"고 초대
 - 2.3.3. 마태는 ()으로 반응: "일어나 따르니라!"
 - 2.3.4. 믿음의 역동적인 정의는 "예수님께 속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"(계 14:4)
- 2.4. 마태의 변화: "하나님의 선물"(마 9:10)
 - 2.4.1.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큰 잔치 → 자기만 알던 그가 주님과 이웃을 위해 돈을 사용
 - 2.4.2.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를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옴(딤후 1:16)
 - 2.4.3.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, 시리아와 같은 지역에 복음전파
 - 2.4.4. 무엇보다 ()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참된 제자도를 소개함

3.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

- 3.1.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함
 - 3.1.1. 세리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부정한 사람들
 - 3.1.2. 안식일에도 일하는 불경한 사람들
 - 3.1.3.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심 → 용서와 ()의 메시지
- 3.2. 예수님의 동기는 ()
 - 3.2.1. 하나님은 ()가 아니라, 한 사람에 대한 ()을 원하심(마 9:13)
 - 3.2.2.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지만, 병든 자는 다름
 - 3.2.3.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, 죄인을 부르러 오심
 - 3.2.4. 누구라도 도움을 구하면 받아주시고, 긍휼을 베풀어 주심(십자가 위의 강도)

3.3. 요한의 제자들의 비난: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?(마 9:14-17)

3.3.1. 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()의 표현

3.3.2.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? 금식하고 있을 이유가 없음(마 9:15)

3.3.3. 예수님의 비유: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 → 그 순간을 기뻐하고 누려야 함!

3.3.4. 신랑을 빼앗기면(예수님의 죽으심) 그때는 슬픔(금식)할 이유가 다시 발생

3.3.5. 새 술은 새 부대에! →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해야 함

4. 이어지는 기적들: 마태의 관점에서(마 9:18-34)

4.1.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심(마 9:18-26) →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살아남

4.1.1. 한 관리가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함: "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!"(마 9:18)

4.1.2. 예수께서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심

A. 열두 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께로 나아가 그 겹옷을 만짐

B. ()의 외적표현: "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"(마 9:21)

C. 예수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함: "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"(마 9:22)

D.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를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함(레 15:25)

4.1.3.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작용하는 ()의 원리를 소개함

4.2.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(마 9:27-31) →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됨

4.2.1. 두 맹인의 외침: "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!"

4.2.2. 이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리를 들음

4.2.3. 마태복음이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고백

4.2.4. "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?" → "그러하오이다!" → "너희 믿음 대로 되라!"(마 9:29)

4.3.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(마 9:32-34) → 예수 믿으면 영적인 것들을 말하게 됨

4.3.1. 예수께서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심

4.3.2.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말하게 됨

4.3.3.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갖지 못해 진리 아닌 것을 말함(마 9:34)

4. 추수할 일꾼들을 청하심(마 9:35-38)

4.1. 예수님의 3중 사역: (), (), () (마 9:35)

4.1.1. 이 일을 통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마태와 같은 제자들이 생겨나야 함

4.1.2. 이 사역의 본질적인 동기는 () (마 9:36)

4.2. 추수할 일꾼의 부족(마 9:37)

4.2.1.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할 계획(요 14:12)

4.2.2. 양들의 숫자에 비하여 목자는 부족한 현상

4.2.3.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()을 보내어 달라고 간청해야 함